

스코비 가고 '다저스 거포' 온다

김조호 KIA 단장 "4번 타자 영입 추진...최희섭은 5번"

"스코비 가고, 용병타자 온다."
김조호 KIA타이거즈 단장은 4일 "타선의 보강을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용병 타자의 영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조범현 감독과 내년 시즌 전력을 심도있게 상의한 결과 타선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투수 스코비를 내보내는 대신 용병 타자를 영

입, 4번 타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4번에 용병타자를 앉히고, 5번은 최희섭이 뒷받침한다면 어느 구단에도 뒤지지 않는 막강 타선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시즌은 팬들에게 공격적이고, 신바람 나는 야구를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입 용병의 신상에 대해서는 "현

재 LA다저스 소속이며 구체적인 정보는 계약 완료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단장은 투수 스코비의 방출에 대해서 "그와 재계약도 고민해 봤으나, 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입용병을 타자로 확정함에 따라 내년

시즌 KIA 타선은 1번 이용규, 2번 이현곤, 3번 장성호, 4번 신임용병, 5번 최희섭 등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단장은 또 서재용의 영입과 관련해선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구단의 방침"이라면서 "그가 KIA행을 선택한다면 구단도 정한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대우를 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KIA에 합류한 스코비는 126.1이닝 동안 8승 10패, 평균자책점 3.92의 평범한 성적을 남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일 오전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제18회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한국의 문필희(왼쪽)와 허순영이 우크라이나 올레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女 핸드볼 아슬아슬 본선행

세계선수권 우크라이에 26대 25

한국 여자핸드볼대표팀이 우크라이나를 간신히 잡고 제18회 세계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4일 오전 (한국시간)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대회 예선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최임정(7골)과 우선희(6골)의 맹활약에 힘입어 우크라이나에 26-25, 한 점 차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다.
전날 1차전에서 약체 파라과이를 50-12로 대파한 한국은 2연승을 달렸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파라과이를 연달아 꺾은 독일(2승)과 함께 조 1, 2위가 나가는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경기 시작과 함께 허순영, 오성욱의 골로 앞서 나간 한국은 졸골 리드를 지키며 전반을 15-13으로 마쳤다.
후반 20분 23-22, 1점 차까지 쫓긴 한국은 후반 28분 25-25 동점을 허용했지만 원소잡이 거포 최임정이 경기 종료 4초 전 9m차리 외곽포를 골문 오른쪽 아래 구석으로 꽂아 넣으며 승부를 갈랐다.
한국은 5일 오전 독일과 예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F조 1, 2위를 다툴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페르난다 'V 스파이크' 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07~2008 프로배구 V리그 경기에서 KT&G 페르난다가 GS칼텍스 니하원, 김소정의 블로킹을 피해 스파이크하고 있다. KT&G가 세트스코어 3-0으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한-쿠웨이트 재경기 가능성

국제핸드볼연맹, 9월 올림픽 예선전 판정 심의키로

중동 심판의 노골적인 편파판정에 휘둘리며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아시아 핸드볼연맹(AHF) 회장국 쿠웨이트에 빼앗긴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재경기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오는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지난 9월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한국과 쿠웨이트의 올림픽 아시아 예선 1차전과 관련해 편파판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심의한다고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당시 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더 코즈코프 경기 감독관과 독일인 심판 2명을 파

견했던 IHF는 한국-쿠웨이트전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기도 했다.
애초에 경기 진행을 독일 심판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경기 직전 중동 심판으로 바뀐 사실과 코즈코프 감독관이 경기를 수시로 중단시켜 심판들에게 주의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IHF는 또 대한올림픽위원회(KOC)로부터 항의 서한을 전달받고 지난 9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을 처음 논의했으며, 경기 비디오를 분석한 뒤 이번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베이징 직행 농친 야구, 완행은 꼭 탄다

내년 3월 대륙별 PO 제도전...선발투수 보강 과제로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아시아예선전에서 본선 직행 티켓에 도전했던 한국 야구가 일본의 벽에 막혀 2위(2승 1패)에 머물면서 내년 3월 대륙별 플레이오프에서 두 번째 도전을 기약했다.
김경문 감독은 대회 후 인터뷰에서 "내년 3월 대만, 호주 등 8개국과 맞붙는 대륙별 플레이오프에서 본선 티켓이 주어지는 3위 안

에 들 자신이 충분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쉬운 선발 투수=일본에 패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선발 투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만을 무조건 이기기 위해 류현진과 박찬호를 뽐팡 쏟아붓는 무리수를 돌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일본전 선발 공백'이라는 기현상으로 이어졌다.

내년 3월에는 미국프로야구에 소속된 박찬호와 류제국이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느냐 플레이오프에 나올 수 없어 토종 에이스로 마운드를 꾸려야 할 형편이다.
▲중심 타선 기량 회복 급선무=김동주와 이대호 두 중심 타자가 이렇다 할 활약을 못 보여준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김동주가 8타수 1안타, 이대호는 6타수 무안타 삼진 3개에 머물렀다. 일본전에서 찬스가 거듭 다가왔지만 두 타자가 침묵하면서 한국은 끌려가는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김경문 감독이 큰 기대를 걸었던 국제용 이병규(4타수 무안타 삼진 2개)의 부진도 골칫거리였다.
▲세대 교체는 큰 수확=대신 세대 교체의 수확도 있었다. 태극마크를 처음으로 단 이종욱과 고영민은 번개같은 홈런포로 공격을 주도하며 단숨에 주전 자리를 꿰찼다. 왼쪽 엄지 수술로 이번 대회에 결장했던 주포 이승엽이 내년 3월 플레이오프 때는 반드시 출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타선은 좀 더 보강이 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학기 연화제도 문제은행 기회!! 최고의 작중들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교수들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합격설명회 =
베주 - (화,목) 오후 6시 -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향서원 (062)222-6790
www.hgosi.net

= '08년 국가+지방직 시험대비, 동계방학 대강좌!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안내
행정직, 교정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자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불특정직
①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무등,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②
개강: 12월 17일 주·야 (휴일)반모집 (합계 2주)
= 46년 전통의 무등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향서원 (062)222-4560
www.mdgoal.co.kr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겨울방학 대강좌
개강: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행정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국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원전직, 보건직, 기술직
2008 공무원 합격설명회 1차 (1월-12월 15일) 15:30, 2차 (2월-12월 22일) 18:30
개강 1차 12월 17일 2차 12월 22일 대강좌 1월 2일 자연예약입수중 (합계 40명)
1위 한빛공무원학원 현대동부경향 (062)252-0252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한국전기연구원 품질인증제품
농어촌 및 도시 가정용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셨분
●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 ● 지금 전화하시면 설치원료
● 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21평형 398만원, 현관보일러, 내선공사비, 설치비, 보일러보험(연수기별매)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야간~ 주야간~ 기름보일러 사용가정 난방온도 60°C 월난방비용 200,000~400,000원 이상 사용가정
우리집~ 광장집~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가정 난방온도 90°C 한달 난방비 약3~8만원이면 OK
시공방법: 기존의 방바닥은 전혀 손대지 않고, 기름보일러를 떼어낸 자리에 간단하게 연결 부착 시공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약제품 경동 대성 삼양 **구입문의 직통** 010-9469-9373 (062)673-4981